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관내 1,300여 개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헌혈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헌혈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 헌혈기관이나 헌혈 차량의 활동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헌혈을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자 최근 10대의 헌혈 건수가 대폭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헌혈을 입시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헌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확히 왜 헌혈을 해야하는지, 헌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헌혈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가 발표하기로, 학교의 단체 헌혈은 2019년 32만1491건에서 2023년 18만9805건으로 40% 감소했습니다. 개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체헌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관심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헌혈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을 전달하는 헌혈교육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혈로 인하여 생명을 중요시하는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개인적, 단체 헌혈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정한 봉사의

개념을 인식하게 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헌혈교육’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헌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 등의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실제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